



2025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

일시 | 2025. 9. 16.(화) 11:00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상황실

정청래(가운데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관영(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청래, 전주서 호남특위 첫 회의... “호남에 보답할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아 공공의 대 설립,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숙원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당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줄기”라며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었다는 말처럼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낳고 길러주었고,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며 “이제 국가는 호남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국가가 호남발전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될 때”라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민주주의는 여야, 진보·보수가 민주주의를 놓고 다투지 않고 다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다고 말한다.

공공의대 설립·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지원 숙원사업 약속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 ‘호남발전’ 옥동자 낳고 길러야 될 때”

문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다들 호남을 발전시키겠다고 지금까지 많이 말해왔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성과로 호남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라고 했다.

정 대표는 “호남특위는 만들어졌다가 성과없이 끝나고 흩어지는 특위가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서 결실을 맺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며 “호남 국립 의대 문제, 이재명 정부가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호남에 맞는 적절한 발전 요소를 채워 넣는 것이 특위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호남발전특위에서 내놓은 안들을 100% 다 만족할 수 있게 제안하는데로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저도 특위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며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도 호남발전특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이 있다. 같이 손잡고 반드시 성과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출범한 호남특위는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기구다. 지역구 의원들과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삼석 호남특위 위원장은 “500만 호남민들의 염원·숙원까지 논의돼 호남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 정부를 통해 강력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호남 대변혁을 시작하

는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라며 “대통령께서 호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고 정 대표도 결연한 의지와 특위 취지를 말씀하셨다. 당에 헌신·봉사한다는 자세로 특위 위원들의 소신과 철학, 능력, 전문성을 잘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도 “민주당 창당 70주년 사이에 호남발전특위가 발족된 것은 거의 최초다.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말씀하신 바 있어서 정 대표의 ‘국가가 호남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이제 정부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어 전북도청에서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전북 예산과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

/기동취재부

광주시, 가을축제 맞춰 투어버스 확대 운행

지역 대표축제-관광거점 연계 이동편의·관광효과 확대
다인패스권 도입해 가족·친구 등 소규모 단체 혜택 강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G)-페스타 광주’ 가을시즌을 맞아 광주투어버스(관광형 DRT)의 운행을 확대하고 다인패스권을 도입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높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끈다.

‘광주투어버스’는 수요응답형(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교통체계를 적용한 관광형 버스로, 이용자가 광주투어버스 앱을 통해 정류장을 선택해 호출하면 버스가 직접 찾아와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 맞춤형 교통 서비스다.

광주시는 오는 9월 20~21일 열리는 ‘공산뮤직ON페스티벌’과 10월 16~19일 진행되는 서창역새축제와 연계해 황룡천수공원과 서창역새축제장을 직접 연결하는 신규 노선을 신설한다. 그동안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했던 축제장 방문객들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대 5인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인 패스권’을 새롭게 도입, 요금의 10%를 할인한다. 이를 통해 가족·친구 단위의 소규모 단체 관광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운행구역(거점)은 ▲광주송정역(KTX) ▲유스퀘어버스터미널 ▲농성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시청 ▲광주비엔날레 ▲양림오거리 ▲사직전망대



▲서창강성조망대 ▲기아챔피언스필드 ▲대인시장 ▲황룡천수공원 ▲서창역새축제장 등 14곳이다.

이용객들은 광주시청 일원에서 열리는 ▲빛고을 책마당(10월 11~12일) ▲광주김치축제(10월 31일~11월 2일)를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의 ▲광주추억의충장축제(10월 15~19일) ▲충장라온페스타(10월 15~19일) ▲광주버스킹월드드립(10월 15~19일) ▲몽명커피산책(11월 8일) 등 다양한 행사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또 ▲광주디자인비엔날레(8월 30일~11월 2일)와 연계한 관광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전광훈 기자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2일부터 시행

전라남도도는 올 겨울철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예방접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유행이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인플루엔자와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감염병 차단과 중증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특정일에 집중되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6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에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다.

접종대상자는 일정에 맞게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종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접종 후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며,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염선호 기자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